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빅이슈코리아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빅이슈코리아	04
	빅이슈코리아의 시작	
	빅이슈코리아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09
	조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빅이슈코리아 브랜딩 강화	
	홈리스 개념을 주거권 관점으로 전환	
	홈리스 상태에 대한 인식개선	
	주거권 보장 강화 활동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3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1. 지속 가능한 빅이슈코리아로 홈리스 보호의 최전선을 지키다	
	임팩트 2. 주거권 사각지대 공론화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임팩트 3. 주거권 확보를 위한 지지기반 확충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27

2024 IMPACT REPORT

1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빅이슈코리아



우리 사회 주거취약계층의 든든한 파트너인 빅이슈코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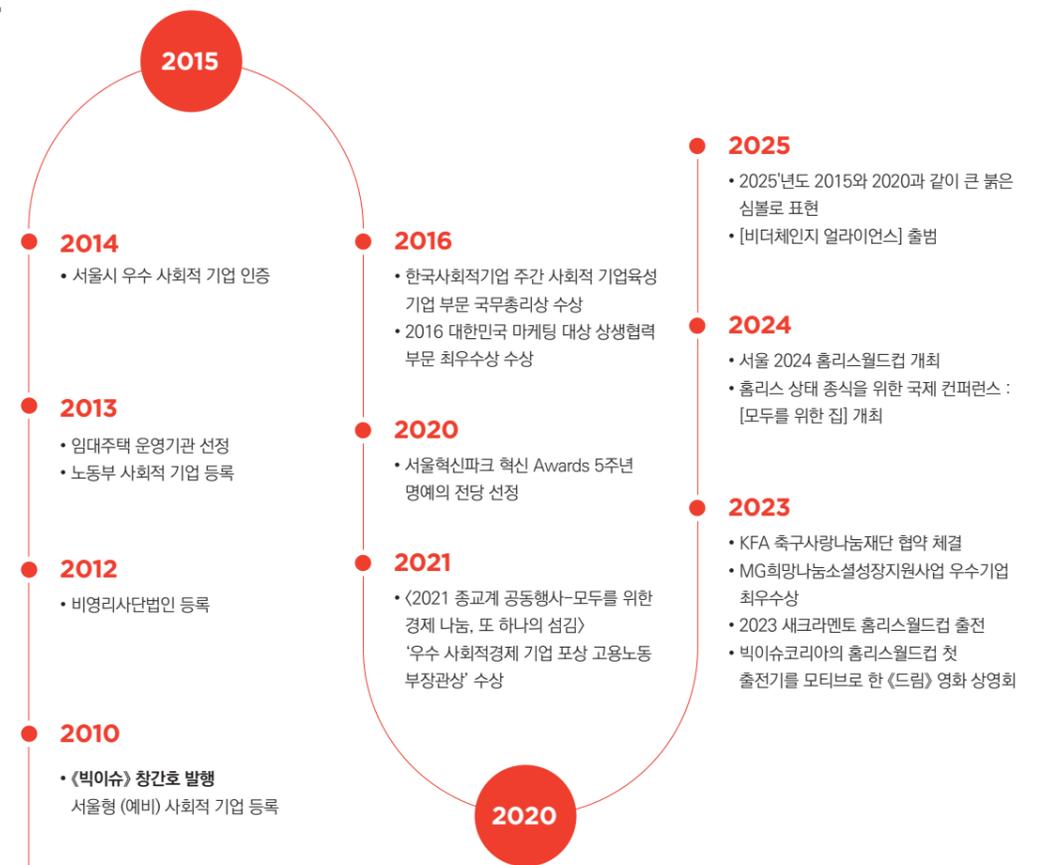
빅이슈코리아의 시작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빅이슈는 *홈리스(Homeless: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잡지 판매를 통해 합법적 수입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빅이슈(Big Issue)》 잡지는 현재 6개국(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대만,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경제 솔루션의 기회 제공을 공동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리스**
현행 <노숙인복지법> 상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노숙인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범위축소 및 왜곡의 문제가 있어 매우 좁은 범위의 대상에게만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기준에 따르면 홈리스는 '안정된 주거권과 직업,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빅이슈코리아는 2008년 10월, '빅이슈 한국판 창간 준비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빅이슈》 잡지를 알게 되거나 구매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한국에도 《빅이슈》와 같은 자립 지원 솔루션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였습니다. 커뮤니티는 2010년 5월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었고, 그해 7월 5일 한국판 《빅이슈》가 창간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판 《빅이슈》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대중문화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 성장하여 매월 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빅이슈》로도 확장 중입니다. 아울러 빅이슈코리아는 창간해부터 인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혁신 국제 축구 대회인 '홈리스월드컵'에 국가대표팀을 출전시켜왔으며, 빅이슈 판매원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이슈코리아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홈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우려하면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UN CESCR, 2017).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주거 우선'이 아닌 '시설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책지원 대상의 범위를 협소한 수준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적정 주거인은 46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은 노숙에 이르는 결정적 요소이자 홈리스 문제의 예방 및 해소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빅이슈의 솔루션

빅이슈는 홈리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들의 자립과 주거권 확보를 노력합니다.

빅이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홈리스(Homelessness, 주거권 사각지대 상태에 놓인 사람들) 문제에 주목합니다. 빈곤으로부터 시작한 홈리스의 주거공간 결핍을 개인 빈곤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사회·정서적, 경제적 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고, 누구도 노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 빅이슈는 지역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빅이슈 판매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잡지 판

매를 통한 자립 및 주거비 지원,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홈리스 상태에 놓인 이들과 시민들이 서로 인간적인 경험을 갖고 긍정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주거 우선(Housing First) 사업 |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빅이슈코리아는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홈리스에게 임시 주거지를 우선 제공하여 '탈노숙'을 지원합니다.

자활 장려 주거비 지원 | 빅이슈코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거취약 판매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매달 최소한의 월세(주거비)를 자활 장려 주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판매원들의 자활 의지가 유지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지원 | 빅이슈 판매원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지표	누적 성과 (2010~2024년)
주거 우선(Housing First) 사업	1,020명
자활 장려 주거비 지원	1,403명(+여성홈리스 10명) 350,472,640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	102명

홈리스 자립 지원 비즈니스 잡지 《빅이슈코리아》 발행

《빅이슈》 잡지 판매 | 잡지 판매 금액의 50%가 《빅이슈》 판매원(이하 빅판)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심리치유 및 건강 관리 | 빅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취업교육 지원 | 바리스타 자격증, 운전면허 취득 등 빅판의 목표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표	누적 성과 (2010~2024년)
《빅이슈》 잡지 판매 수익	5,794,839,800원
판매처 현장 코디네이션	총 29,392회
상담 치료 및 심리 검사 지원	542회, 1976명
외로움 방지 나들이 프로그램 참여	1,288명
건강회복을 위한 진료 및 치료	230명

주거권 보장 활동 및 인식 개선 사업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홈리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제 축구 대회인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과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홈리스 상태와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법 개정 연구 및 주거권 |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 사각지대에 관한 법 개정 등 정책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노숙인'에 한정된 의미로 통용되는 홈리스 개념의 인식 개선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지표	누적 성과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개최	40개국 500여 명 참가 (*아시아 최초 개최)
국제 컨퍼런스 개최	1회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개최 계기)
법 개정 관련 학술연구 발표	1건



2024 IMPACT REPORT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빅이슈코리아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운영하며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거권 보장 활동과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모금 사업 전담 부서 신설·운영을 통한 조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빅이슈가 모금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입니다. 그전까지 빅이슈는 잡지 판매 수익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했으며, 조직 내부에서는 “동등한 '사회적 거래'가 아닌 '자선'의 이미지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모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모금 활동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잡지의 거리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서 조직의 생존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2022년에는 잡지 제작마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심 끝에 모금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라 처음으로 연말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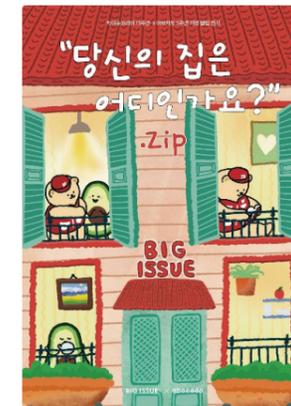
다행히 2021년의 첫 모금 캠페인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에는 조직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모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기획, 커뮤니케이션 채널, 대중 소통 전략이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재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금 사업 전반에 관여하며,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이언임팩트를 만나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 조직 내 모금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빅이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면 우선 빅이슈의 경제적 자립을 갖추자" 라는 목표 아래, 커뮤니티 매니저(Community Manager), 펀드레이저(Fundraiser), 후원자 관리 담당자를 채용하여 후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모금 전담 부서를 구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브랜딩 강화

아울러 빅이슈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 창간 13주년 팝업 전시 및 브랜드 워크숍을 개최하여 빅이슈 브랜드의 정체성을 내재화하였습니다. 또한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스몰 브랜드 개발 플랫폼 '아보카도(abocado)'와 협업하여, 사회적 기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추진 사업	관련 내용
브랜딩 강화	창간 13주년 팝업 전시 :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브랜드 워크숍 개최 : 브랜드 정체성, 핵심가치 및 비전 공유
영화 <드림> 연계 홍보 캠페인	900여 명의 이해관계자 초청 영화 상영회 개최
모두를 위한 축구, 모두를 위한 집 모금 캠페인 전개	일반 시민 대상 모금 활동



창간 13주년 팝업 전시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영화 <드림> 연계 홍보 캠페인

홈리스 개념을 주거권 관점으로 전환

홈리스, '노숙인'만이 아닌 '안정된 주거권이나 직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으로 개념확장

빅이슈의 설립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의 자립에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비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홈리스는 ‘노숙인’에 한정된 경향이 있고, 「노숙인복지법」(제2조 정의)상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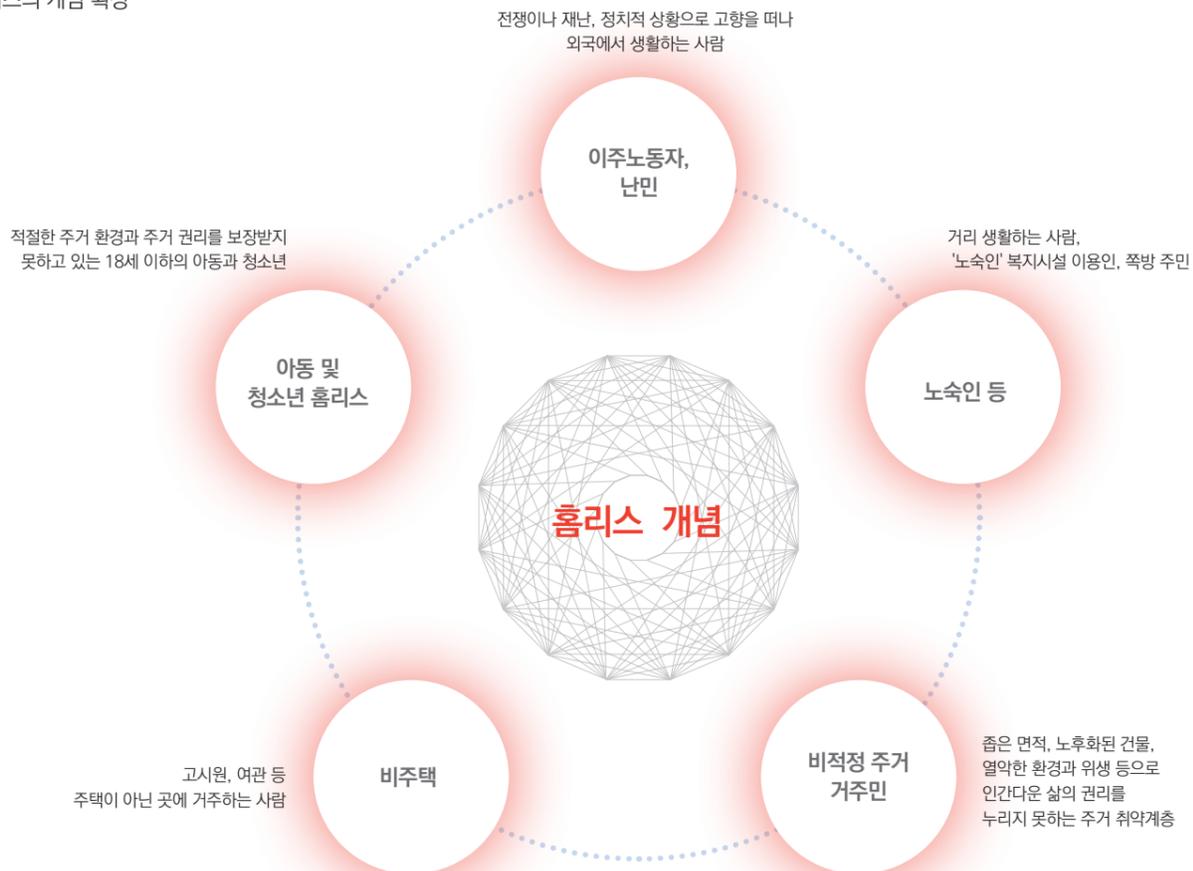
-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취약계층을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주거 거주민이나 아동, 청소년,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등은 모두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반면 EU, 미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홈리스의 정의

<p> EU의 홈리스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 임시숙소 생활인 • 비주택거주인 • 타인의 주택에 더부살이하는 사람 등 	<p> 미국 「홈리스지원법」상 홈리스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및 아동 등을 포함 • 가정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p>UN Habitat에서도 홈리스를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시숙소, 쉼터, 일정하지 않은 거주지 등 불안정한 주거 상황과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기본권으로써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 전체를 포함합니다. 빅이슈코리아도 홈리스를 '안정된 주거권이나 직업 등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p>	

홈리스의 개념 확장



홈리스 상태에 대한 인식개선

이에 빅이슈코리아는 홈리스의 개념을 확장하고 주거권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홈리스월드컵을 서울에 유치, 2024년 9월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기간에 《모두를 위한 집 :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병행 개최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했습니다.

주거권 보장 강화 활동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연구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노숙인 등의 범위 및 고용 지원을 중심으로》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의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차원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빅이슈코리아 조직 내 법제정 연구 TF팀을 신설,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 IMPACT REPORT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빅이슈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며 홈리스 보호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주거권 사각지대를 공론화해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주거권 확보를 위한 지지 기반을 넓혀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핵심 성과

개인 자립 지원 솔루션에서 주거권 의제 공론화를 위한 사회구조적 솔루션으로 도약

빅이슈코리아_임팩트그라운드 참여 핵심 성과
(2023~2024년)

개인 자립 지원에 주력

빅이슈 잡지판매 : 경제적 자립 지원
빅이슈 판매원 : 정서적 자활 지원

조직의 지속 가능 역량 강화

모금전담 부서 신설:
잡지판매 이외에 수익 채널 확충

잠재후원자 전략적 관리:
뉴스레터 발간 및 소통 방식 다변화

주거권 의제 성숙 및 공론화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개최 계기
국제 컨퍼런스 주최

정책연구를 통한 “주거권 사각지대”
개념 확산 등 의제 공론화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은 빅이슈코리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빅이슈코리아는 홈리스 개인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거 취약계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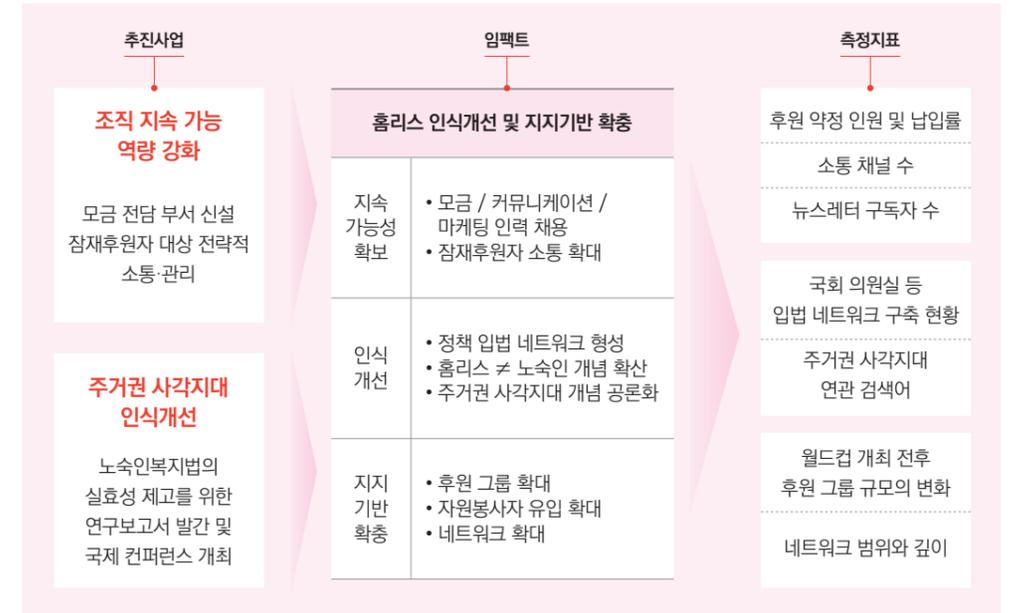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는 빅이슈코리아가 개인 자립 중심의 활동을 넘어, 사회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법제정 연구 등 정책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홈리스는 곧 '거리 노숙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빅이슈가 시작된 영국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 안정된 주거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모두 홈리스로 간주합니다. 그간 빅이슈코리아는 잡지 판매를 중심으로 개인 자립 지원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홈리스 주거권 논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하는 대규모 이벤트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빅이슈코리아 안병훈 상임이사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구분	지표	성과 (2010~2024년)
안정적인 적정한 주거공간 자원성과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1,020명
	자활 장려주거비 지원자	1,403명(+여성홈리스 10명)
	자활 장려주거비 지원금액	350,472,640원
사회참여 준비 강화 성과	빅이슈 판매원 등록인원 수	1,378명
경제 성과	빅이슈 잡지 판매부수	2,409,843권
	빅이슈 판매원의 경제적 총수익	5,794,839,800원

구분	지표	2024년	2025년
홈리스 인식 개선 성과	구독자, 후원자의 홈리스 인식 및 태도 점수	3.71점/5점	4.17/5점
	구독자, 후원자의 빅이슈를 통한 홈리스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 응답률	4.22점/5점	4.25점/5점
	홈리스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간 수	1건	

구분	지표	2024년	2025년	증감율
지지그룹 형성	빅동 현장 활동 참여자 수	53명	162명	약 3배 증가
	협력단체 수	-	445개	약 400배 증가
사회	심리/정서 지원 제공 횟수	20회	40회	2배 증가
	건강 회복을 위한 진료 및 치료 지원 대상자 수	33명	58명	76% 증가
	외로움 방지 프로그램 수료자 수	109명	168명	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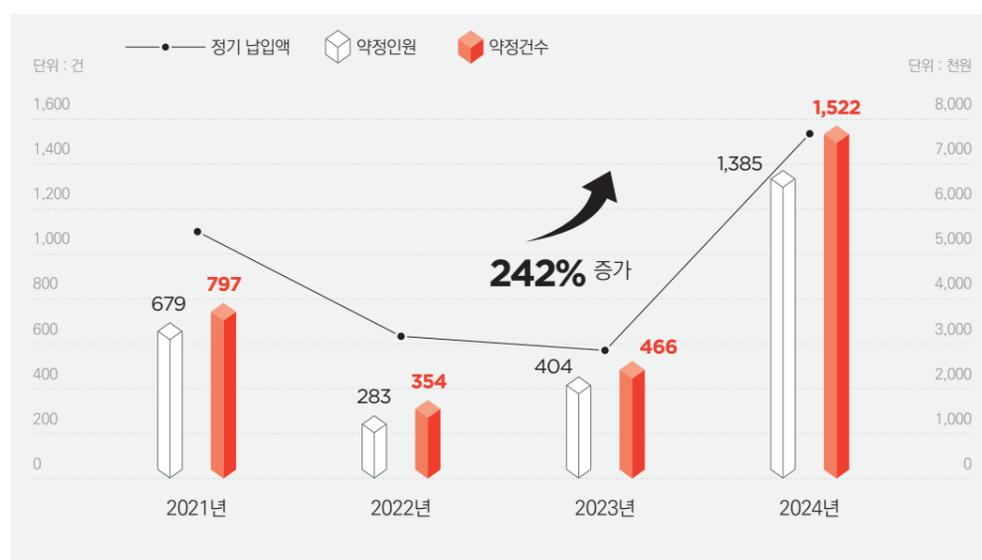
임팩트 1. 지속 가능한 빅이슈코리아로 홀리스 보호의 최전선을 지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존속의 위기에 놓였던 빅이슈코리아는,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모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다음 해 잡지 제작비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었지만, 팬데믹 시기에는 잡지 제작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리 판매가 중단되면서 '잡지 판매'에 의존하던 판매원(빅판)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일부는 다시 노숙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빅판 곁에서 "안녕하십니까, 빅이슈입니다"라고 외치며 판매를 지원하던 도우미(빅돔) 활동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연말에 진행한 첫 모금 캠페인은 '모금 또한 조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전담팀이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된 모금 활동은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금도 조직 운영의 전략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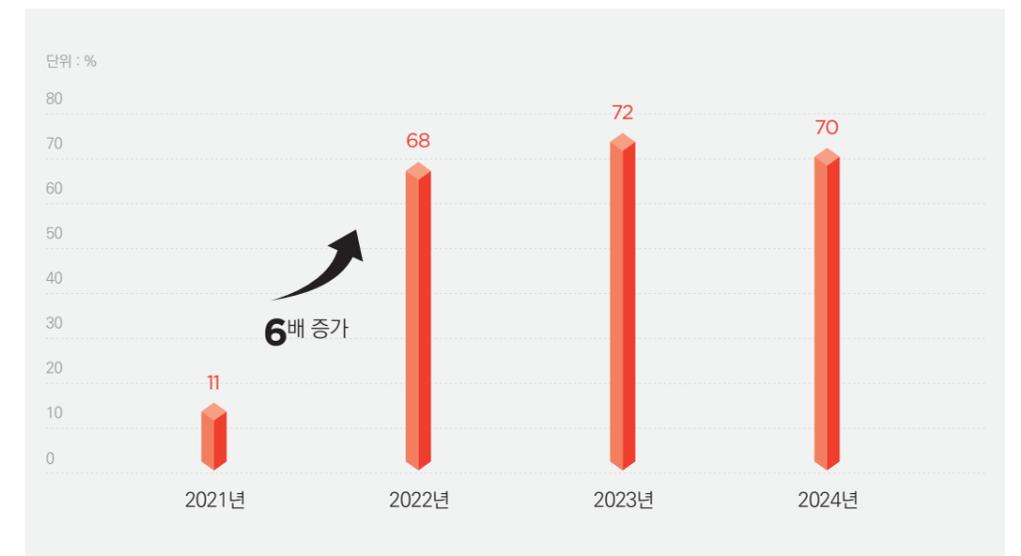
2023년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계기로, 모금 및 후원자 관리를 전담하는 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분야의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5명을 신규 채용하고, 후원금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관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조직 내에서는 "모금과 후원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도했던 연말 모금 캠페인은 정례화되었고, 필요 시 수시로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급감했던 약정 인원과 약정 건수가 2023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679건이던 약정 인원은 2022년 283건으로 58% 감소했으나, 모금 전담 부서 신설 이후인 2024년에는 1,385명으로 늘어나 242% 증가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연도별
약정현황 및 정기 납입액
(2021년~ 2024년)



정기 납입액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약 662만 원에서 42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2024년에 393만 원 수준에서 약 869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후원자가 약정 의지를 밝혔다고 해서 모두 실제 납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정에 대한 실제 납입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의 경우 약정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납입으로 이어진 비율은 11%에 그쳤는데, 2022년 납입률이 6배 증가한 이후 2023년 70%를 넘어섰고, 2024년에도 70%를 유지하면서 납입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정별 납입률
(2021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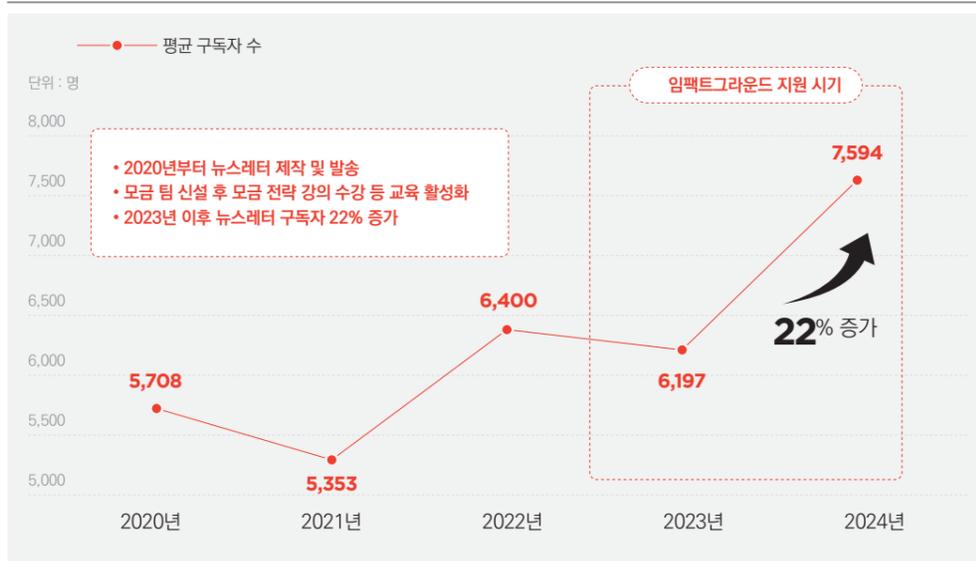


이로써 2021년 당시 존폐위기에 있던 빅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 부서 신설을 계기로 직원들은 모금 관련 각종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동기 부여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후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기존 후원자들과의 관계 또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전략이 정기 뉴스레터 발간입니다. 기존에도 2021년부터 '빅곰레터'라는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했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월 2회 발간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빅곰레터는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빅곰레터의 구독자는 빅이슈 활동을 지지하는 핵심 후원층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6,197명이던 구독자가 2024년 7,594명으로 22% 증가하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구독자 변화추이



조직으로서 빅이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나라 주거권 의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의 통해 빅이슈는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잠재후원자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존립을 넘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구조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빅이슈코리아의 조직 운영 전략 강화는 개별 조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임팩트를 창출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유지하고, 주거권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 의제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 자립 지원 중심에서 사회 구조적 접근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모금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맞물리며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빅이슈코리아는 조직 내부의 지속 가능성과 외부 사회문제 해결력 간의 균형 있는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빅이슈는 홈리스 문제를 복지적·경제적 빈곤에 국한하지 않고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노숙만이 아닌 반지하 고시원, 쪽방, 시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전반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주거권 보장 및 사회적 낙인 해소,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담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빅이슈의 지속 가능성은 곧 주거권 문제 해결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2. 주거권 사각지대 공론화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노숙인복지법 연구 리포트 발간을 통한 정책 의제화 추진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임팩트는 주거권 사각지대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공론의 장으로 확장함으로써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빅이슈는 2023년 9월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노숙인 등’의 범위 및 고용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법제정 연구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빅이슈 임직원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숙인복지법의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 결과물입니다.

본 연구 리포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2011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이 행정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엽적 개정에 머물러 법의 실효성과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별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 ‘노숙인 등’의 개념 정의가 임의로 축소 해석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숙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노숙인복지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것을 제안함
- 고용지원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함
-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고용지원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함
- 복지서비스의 시설 중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운영비만이 아닌 전체 복지사업 비용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함

노숙인복지법 관련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이슈의 법제정 연구는 1)홈리스의 개념 재정립을 요구하고, 2)‘주거 우선(Housing First)’ 접근의 부재를 지적하며, 3)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빅이슈는 홈리스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2024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홈리스월드컵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주거권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Seoul 2024 Homeless World Cup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제19회

- **일정** 2024년 9월 21일~28일 (8일 간 총 330여 경기)
- **장소**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등
- **참가자 수** 약 20,973명 (해외 참가자 6,016명 및 관람객 포함)
- **참가 팀** 38개국 56개 팀 (남성 36개 팀, 여성 16개 팀) / 선수 450명 / 해외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259명
- **공동주최** Homeless World Cup Foundation(영국) /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 **주관**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조직위원회
- **후원** FIFA,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딜라이브, 아름다운가게, 영웅시대(임영웅 공식 팬클럽), 금융산업공익재단, 동국제강그룹, 한국수력원자력, 금융투자협회 등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거권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축제, 홈리스월드컵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4.9.26, KBS뉴스9)
-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대표로 뛰는 홈리스월드컵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4.9.28, SBS 8뉴스)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각 나라 축구 선수로 출전하는 홈리스월드컵이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2024.9.21, JTBC 뉴스룸)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개최 시 “모두를 위한 집 -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집 -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요

- **일시**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20분
- **주제** Cities Ending Homelessness (홈리스 상태 종식은 가능한가?)
- **장소** 한양대학교 HIT 대회의실(서울)
- **참석자** 국내외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 정치인, 기업인, 학생 등
- **주요 세션 주제**
 - » 한국의 주거빈곤과 정책: '노숙인 등' 법 정의의 한계 및 통계 왜곡, 실효성 관련 논의
 - » 모두를 위한 주거: 여성 및 청소년, 난민 등의 홈리스 실태 보고
 - » 기후위기와 주거: 기후난민과 주거위험 이슈 논의
- **좋은 정책 실천 사례 공유**
 - » 서울 성동구 '위험거처' 조례: 반지하 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공공임대 이주 및 공공공간으로 전환함 → 전국 최초로 거처 자체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정

홈리스나 주거권 사각지대 관련 국제회의 또는 포럼은 개별 발제 중심의 워크숍 수준으로 진행된 적은 있으나,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가들이 모인 국제 컨퍼런스는 2024년 '모두를 위한 집' 국제 컨퍼런스가 첫 사례입니다. 특히 지난 국제 컨퍼런스는 FIFA가 인증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과 함께 개최되어 인식 전환과 정책 변환을 함께 결합한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멕시코, 미국 등 10여 개국 이상 관계자 및 연사가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와 넓이에도 실제적 다양성이 더해졌습니다.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를 위한 입법 네트워크 구축

법제정 연구와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국제 컨퍼런스 등은 주거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입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숙인복지법 제정과 같은 법 제도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입법 분야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에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논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계기로 법제정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월드컵과 국제 컨퍼런스가 맞물려 추진되면서 하나의 작은 점처럼 존재하던 정책 의제화에 대한 노력이 국회, 서울시의회, 사단법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총 9개 기관의 노드(nodes)를 구축하며 정책 입법 네트워크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이은 국제 이벤트 통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2024년)

2024

주거권 사각지대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를 위한 입법 네트워크 부재

국회 의원실 및 서울시의회, 공공기관 등 9개 네트워크 노드(nodes) 형성

구분	상세	구분	상세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 국민의힘 의원 1명 • 조국혁신당 의원 2명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체육정책과 • 한국관광공사 • 성동구 구정연구기획단 • 서울관광재단 MICE팀
서울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의원 2명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심리학회(서울시의회 연결) 		
총 9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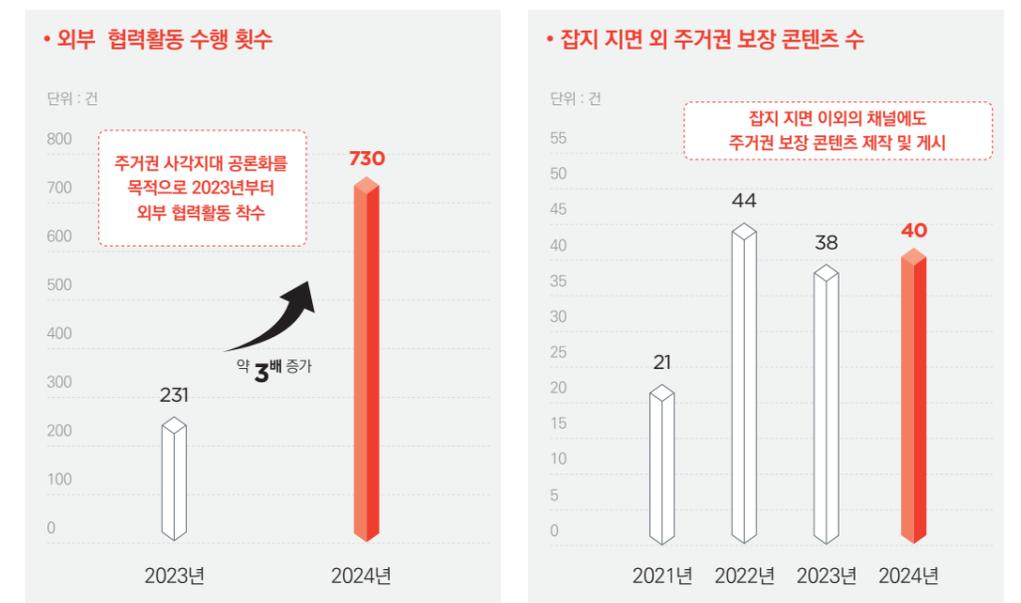
* 2024년 이전에는 주거권 사각지대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를 위한 입법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음.
*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주거권 사각지대 문제 공론화를 입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사단법인 및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7명), 국민의힘(1명), 조국혁신당(2명) 의원실과 협력했으며, 서울시의 회에서는 국민의힘(2명) 의원실과, 서울시의회의 소개로 함께한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가 주거권 사각지대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사례로는 서울시 체육정책과 와 한국관광공사, 성동구 구정연구기획단, 서울관광재단 MICE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거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협력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지지 네트워크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인 2023년까지만 해도 주거권 사각지대 관련 담론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존재하여 협력구조가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 연구와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등을 계기로 빅이슈는 정책 입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제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의 구조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국회 및 공공기관 등 실질적인 정책 입법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외부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주거권 사각지대 공론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활동을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빅이슈의 잠재후원자에게도 주거권 사각지대 관련 문제를 계속 알리기 위해 《빅이슈》 잡지 지면 이외 주거권 관련 콘텐츠도 별도로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3. 주거권 확보를 위한 지지기반 확충

빅이슈코리아 연관 검색어 및 설문으로 본 사회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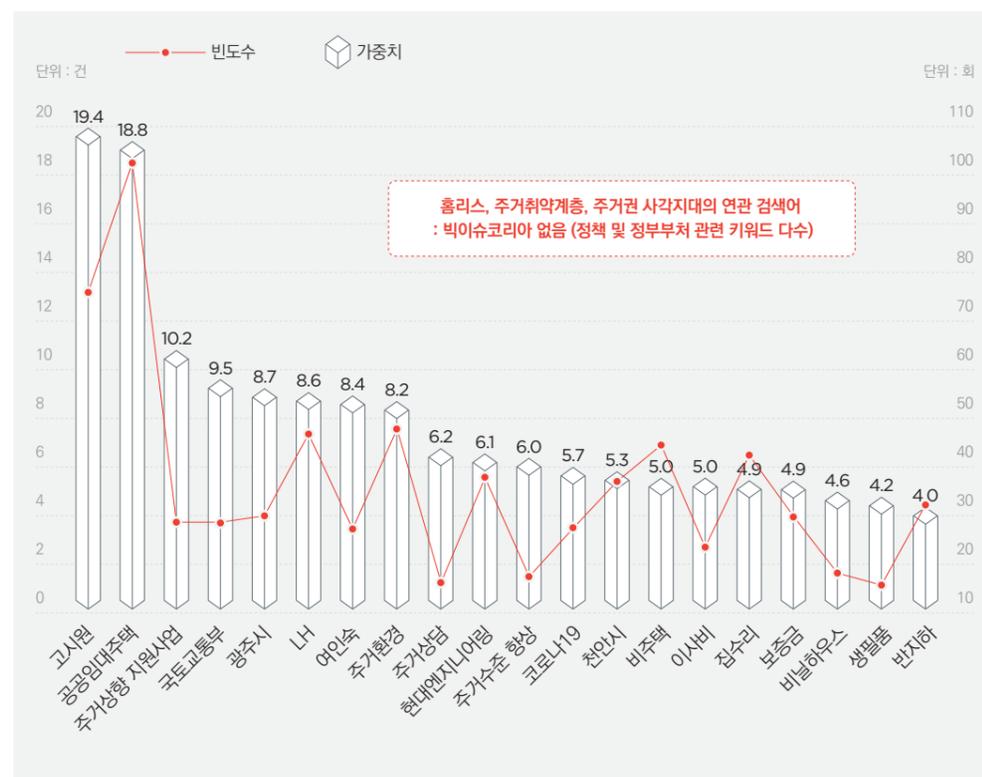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이하 '빅인즈')를 활용,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사각지대'를 검색어로 하여 연관 검색어를 살펴 보았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2023년~2024년) 이후 조직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구조적 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관련 문제 해결 노력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2021년~2022년, 2023~2024년을 구분하여 검색하였습니다.

2021년~2022년 연관 검색어

광고성 검색어를 제외한 상위 20개 연관 검색어를 가중치*와 빈도 수*로 나누어 보면, 2021년~2022년의 경우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등 주거지와 정책, 정부부처가 직접 언급되어 가중치와 빈도수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은 검색어로 나타났습니다. 빅이슈코리아 또는 빅이슈라는 단어는 2021년~2022년 자료의 상위 20개 연관 검색어 중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가중치(weight)
검색어와의 관련성, 검색어와 동시 출현 강도 및 검색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연관성 점수
- * 빈도 수(term frequency)
뉴스 본문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등장 빈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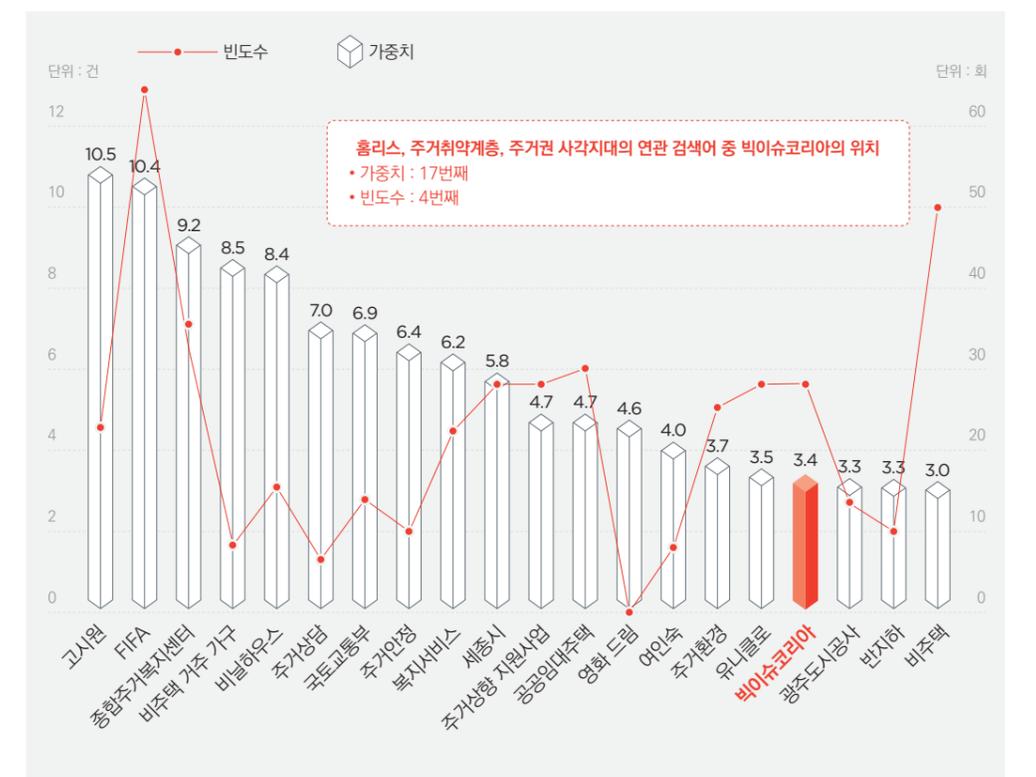
2021년~2022년 연관 검색어 Top 20



2023년~2024년 연관 검색어

반면 2023년~2024년의 경우 빅이슈코리아가 등장합니다. 우선 가중치를 기준으로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사각지대'의 연관 검색어들은 고시원, FIFA(국제축구연맹), 종합주거복지센터, 비주택 거주 가구, 비닐하우스 등입니다. FIFA가 상단에 검색된 이유는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 순서를 따를 경우 빅이슈코리아는 상위 20개 연관 검색어 중 17번째에 나타납니다. 한편, 빈도수 순서로 집계하면 빅이슈코리아는 FIFA(67회), 비주택(50회), 종합주거복지센터(36회), 공공임대주택(30회)에 이어 상위 4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사각지대의 연관 검색어를 살펴본 결과, 2021년~2022년에는 빅이슈코리아가 언급되지 않다가 2023년~2024년 상위 20개 단어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후 사회구조적 솔루션으로 확장한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2024년 연관 검색어 Top 20



빅이슈 구독자 및 후원자의 인식 변화

빅이슈는 2024년에 구독자 및 후원자 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홈리스에 대한 개념 정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수행한 법제정 연구와 서울 2024 홈리스월드컵, 국제 컨퍼런스 등 일련의 행사가 진행된 이후 빅이슈 구독자와 후원자들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24년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또 한번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 “빅이슈코리아가 홈리스 인식에 미친 영향” 항목에서 긍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설문조사 개요

- 설문응답자 빅이슈코리아 구독자 및 후원자 169명
- 설문조사 기간 2025.5.29(목)~6.4(수), 총 5일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홈리스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



빅이슈코리아를 통해 홈리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임팩트그라운드와의 지원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빅이슈코리아는, 앞으로도 주거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빅이슈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나 긴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꾸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빅이슈재단’ 설립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는 빅이슈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빅이슈코리아는 홈리스 당사자들이 잡지 판매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빅이슈재단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대중 인식 제고를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이원적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홈리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빅이슈는 중증장애인, 난민,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주거권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활동을 통해 주거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실현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거권은 단지 집 한 칸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이며, 이 권리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빅이슈는 이제 ‘돕는’ 조직에서 ‘바꾸는’ 조직으로 나아갑니다.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해내는 시민으로서 누구나 설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회”를 향해, 빅이슈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질문하고 연결하며 대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